

“한국에도 아버지 있어 외롭지 않아요”

베트남 참전용사-베트남 이주여성 ‘양부·양녀’ 결연

“베트남에 계신 부모님이 항상 그리웠는데, 이제 한국에도 아버지가 생겼으니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지난 29일 광양시 광양읍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는 베트남에서 온 이주여성들과 베트남 참전 용사들을 위한 뜻 깊은 행사가 진행됐다.

‘베트남’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 이주 여성들과 (사)대한민국 베트남 참전 유공 전우회 전남지부 회원들이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살 수 있도록 ‘양부·양녀 결연식’이 열렸다.

이날 결연식을 통해 양부·양녀를 갖게 된 어영터 미형(여·25)씨와 이형주(65)씨 등 각각 5명의 베트남 이주여성들과 참전 용사들은 행사에 참석한

500명 가량의 축복을 받으며 서로에게 좋은 딸과 아버지가 될 것을 약속했다.

특히 미형씨 등 5명의 베트남 이주여성들은 대부분 한국에 온 지 채 5년이 되지 않아 고향과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여전히 짙은 상황이라서 이날 행사는 더욱 의미가 컸다.

이들 중에서도 판소영(여·35)씨는 베트남에서 아버지를 여읜 지 20년 넘었지만, 지역만리 한국에서 양아버지가 생기게 됐다. 그는 “오늘 결연식을 맺고 나니 문득 어렸을 때 돌아가신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뭉클해졌다”고 말했다.

베트남에 부모님을 두고 홀로 한국에 와서 가정을 꾸린 지 4년째인 미형씨는 “(참전을 통해)베트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들과 (사)대한민국 베트남 참전 유공 전우회 전남지부 회원들이 광양시 광양읍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각각 서로에게 양부·양녀가 되자는 결연식을 맺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남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아버지가 생겨 마치 고향에 온 기분이 든다”며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양아버지에게 상담하고, 조언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형씨의 양아버지가 된 이씨는 베트남전 당시 약 1년 동안 베트남에 파병돼 약 1년 동안 무전병으로 활동했다. 이씨는 “우리 나라에서 생활하고 있는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들을 볼 때마다 남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딸이 된 미형씨가 한국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물질양면으로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대한민국 베트남 참전유공 전우회 전남지부는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산하 22개 시·군지회 소속 회원 가운데 300여명과 도내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들을 양부·양녀로 맺어주고, 한국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다. /광양=김희기자 kimho@kwangju.co.kr

개인전 여는 서양화가 방철호 목사

“종교와 예술은 사람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줍니다.”

복화 활동을 하며 서정적인 화풍을 선사하고 있는 서양화가 방철호 광주주요교회 원로목사가 오는 4일까지 금호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무등산, 지리산 등 국내 산과 자연 풍경을 주제로 한 단아한 풍경화를 선사한다. 그는 “그동안 전시회 수익금으로 불우 이웃 돕기 성금을 기탁했는데, 이번 전시 수익금은 노사화합 기금으로 내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조선대 문리대학 미술학과(현 조선대 미술대학)를 졸업한 뒤 서울, 광주, 스위스 등지에서 17차례 개인전을 열었다.

또 기독교대한성령교회 총회 목사 안수를 받은 뒤 기독교간담협의회 상임고문을 맡는 등 다양한 복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회 대표, 광주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2-360-8436.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장복심 매산중·고 동창회장 취임



장복심 전 국회의원이 지난 달 29일 순천 매산중·고등학교 20대 동창회장장에 취임했다. 장 전 의원은 약사 출신으로 17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다. /박지경기자 jkpark@

광주시청 박래호씨 대통령 표창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박래호(58) 사무관이 정부합동 감사에서 감사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박 사무관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올 1월까지 감사총괄담당 등을 담당해오면서 ‘열린 감사행정’을 주도하고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된 정부합동감사 수감계획을 깊이 있게 수립해 감사성과를 올리는데 기여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팜스타 머라이어 캐리 쌍둥이 출산



미국의 팜스타 머라이어 캐리(41)가 쌍둥이를 출산했다. AP와 로이터 등 외신은 “머라이어 캐리가 지난 3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병원에서 딸과 아들 쌍둥이를 출산했다고 대변인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머라이어 캐리는 몸무게 2.35kg의 딸과 2.44kg의 아들을 차례로 낳았으며, 아이들의 이름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이날은 머라이어 캐리와 닉 캐논의 세 번째 결혼기념일이었다.

머라이어 캐리는 2008년 신작 뮤직비디오를 작업하다 만난 것으로 알려진 10세 연하의 흑인 배우이자 래퍼인 닉 캐논과 결혼했다. /연합뉴스

대방

▲범희승(사단법인 광주권 의료관협회의회장)씨 ▲장우남(/ 상임이사)씨 ▲송은규(전남대병원장)씨 ▲안도섭(/ 사무국장)씨

광주 강연 이희호 여사



“좌절 극복해야 멋진 삶... 신념과 용기 가지세요”

“김대중 대통령님이 나라의 통치자가 되고 노벨평화상까지 받았지만,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온갖 역경을 이겨낸 신념과 용기, 희망을 가지고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영부인 이희호 여사가 지난 30일 광주시 동구 용연중학교를 방문해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인권·세계평화를 위한 삶’이라는 주제로 특강했다.

이 여사는 “대한학교인 용연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한때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용연의 학생들과 김 전 대통령의 삶이 닮은 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 여사는 “김 전 대통령은 30여년 동안 정치적인 탄압과 박해에도 신념을 굽히지 않고 독재자에 무릎 꿇지 않았다”며 “인생 성패는 역경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는 만큼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 성공한 삶을 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여사는 “김 전 대통령은 난관을 만나면 어떤 하얀 백지를 절반으로 나눠 각각 자신의 장점과 역경을 적은 뒤 좋은 점이 많은 쪽 보고 새희망을 가졌다”며 “사람들이 인생에서 역경을 너무 크게 생각해 좌절하는 만큼 자신의 장점을 크게 생각해야 역경이 작아진다”고 덧붙였다. /윤영기자 penfoot@

윌리엄 왕자-케이트 미들턴 ‘세기의 결혼식’



영국 왕위계승 서열 2위 윌리엄 왕자와 ‘평민 신부’ 케이트 미들턴의 결혼식이 전 세계 20억명의 시청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지난 29일 런던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 성대하게 거행됐다. 이날 결혼식은 오전 11시(한국시간 오후 7시) 신부 케이트가 부친의 손을 잡고 성당에 입장한 직후 영국성공회 수장 로만 윌리엄스 대주교의 집례 아래 혼인예배로 시작했다. 웨스트민스터 성당은 1997년 윌리엄 왕자의 모친인 고(故) 다이애나비의 장례식이 엄수됐던 곳이다. /연합뉴스



故 고영두 회장 공적비 제막



생전 지역발전과 후진양성에 힘쓴 故 고영두 (주)삼천스테인레스 회장 공적비 제막식이 1일 광주 대충중앙초교에서 열렸다. 고 회장은 형편이 어려운 마을에 공동의 농토를 구입해 주고, 학교에는 학용품과 장학금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김진수기자 jeans@

화순 보월마을 ‘그린타운’ 사업 현판



한국전기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지난 29일 화순 이서면 보월리 마을회관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하는 전기안전 마을(그린 타운)’ 사업 현판식을 가졌다. /연합뉴스

해남땅끝호텔 1등급 인증 현판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29일 해남군 송지면 해남땅끝호텔에서 김주열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남땅끝호텔 등급(1등급) 표지판 현판식’을 개최했다. <전남개발공사 제공>

생활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8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 ▲박상률(한국화 화가)·황형자씨 장남 천웅(공인중개사)군 김명철·연명순씨 장녀 연희(외투디자인)양 =7일(토) 오후 3시 30분 여수 마리나웨딩홀 2층.
- ▲김동술(예성교회 담임목사)·주옥희씨 장남 승철군 고재형(전 광주대촌농협전주)·한미숙씨 장녀 금강양 =7일(토) 오전 11시 30분 광주선교로 교회 5층.
- ▲이영기(농협곡성군지부장)·노명숙씨 장남 범우(LG화학기술연구원)군 황의순(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동구지회장)·이정자씨 장녀 현양 =7일(토) 오후 1시 광주메리어트웨딩홀 1층(사카이어홀)
- ▲황의근·이진남씨 장남 영준(아주대병원 내과)사)군 김기원(전남

동창·동문회

- ▲목포고 5회 동창회(회장 정병섭) 월례회 =4일(수) 오후 6시 30분 금강산식당. 062-224-0808.
- ▲김영김씨 광주시 동창회(회장 김형만) =6일(금) 오후 6시 미송식당(호남동 광주제무서 건너편) 062-223-6322, 011-611-4567.

종친회

- ▲김영김씨 광주시 종친회(회장 김형만) =6일(금) 오후 6시 미송식당(호남동 광주제무서 건너편) 062-223-6322, 011-611-4567.

알림

-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 ▲사주 쉽게 배울 분 개인·단체 환영 =광주시 북구 우산동 자담역리화회. 062-263-0208.
- ▲광주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미혼모(부)자 지원사업 위기지원(출산·양육·응급상황발생시 아이 병원비·생필품),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 지원 062-234-5792. (http://gjdongfc.familynet.or.kr/)
- ▲발관리 전문 상담 =무릎고 피곤한 발, 각질, 무좀, 갈라진 발, 붓는 발 등. 광주시 북구 풍향동 백림약국 탐정형외과 옆 배네슈. 062-266-6657.
-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출 및 위기 청소년보호시설 =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 ▲북부비만·피부관리 셀프무료 체험 =광주시 북구 우산동 말마루 시장 보광 한의원 3층 나비열 우산갤러리. 062-261-5875, 011-9614-3348.
- ▲광주 여성의 전화 무료 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 =가정폭력, 성폭

- 력, 성매매, 직장내 성차별, 이주여성 문제 등 상담. 062-363-0442~3.
- ▲광주중합사회복지관 아동가족상담센터 무료상담 =아동심리적 발달·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미술치료, 언어치료, 자녀양육상담. 062-264-4370, 5308.
- ▲오지중합사회복지관 이주여성 한국사회 적응력 향상 무료 교육 =요가, 웃음교육, 푸드아트테라피, 매주 월·수요일 오전, 선착순 20명. 062-267-3700.

부음

- ▲김양금씨 별세 종식·종일·종육·종업·종애·종숙씨 모친상 =발인 2일(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 ▲김권중씨 별세 영봉·철심·찬섭·영희·정순씨 부친상 =발인 2일(월)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 ▲신영강씨 별세 동수·동화씨 부친상 =발인 2일(월)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삼가 故 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故 卓순례 님(여/91세)
 子/子婦: 문순심 님 / 장모님: 최희숙 님
 孫: 하성훈, 지연, 장백관, 정인
 故 卓순례 님(남/79세)
 子/子婦: 문순심 님 / 장모님: 최희숙 님
 孫: 하성훈, 지연, 장백관, 정인

故 卓순례 님(남/79세)
 子/子婦: 문순심 님 / 장모님: 최희숙 님
 孫: 하성훈, 지연, 장백관, 정인

故 卓순례 님(남/79세)
 子/子婦: 문순심 님 / 장모님: 최희숙 님
 孫: 하성훈, 지연, 장백관, 정인

문의 (062)227-4000

故 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故 임옥연 님(여/79세)
 子/子婦: 문병권/전미경, 병만/김경래, 병국/이진희
 女/婿: 문숙희/박삼구, 숙경/신현철
 故 오준근 님(남/87세)
 子/子婦: 오승일/정영심, 정호/김영희, 정철/김영희
 女/婿: 오영희/김영희, 오영희/김영희

故 강기봉 님(남/79세)
 子/子婦: 강보영/오정희, 서영/김정순, 서영/김정순
 女/婿: 강영준/김정순, 강영준/김정순

故 강부철 님(남/71세)
 子/子婦: 강영준/김정순, 강영준/김정순
 女/婿: 강영준/김정순, 강영준/김정순

그린장례식장 24시간대기 (062)250-4455